

<제출 원고작성 예제>

예제 1 (전체 편집양식/사사표기 등)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해양교류에 관한 고찰*

저자이름**

- I. 이끄는 말
- II. 선사 시대 한반도·동남아시아·인도 해양교류의 가능성
- III. 기원 1세기 인도 공주 허황옥의 가락국 내도
- IV. 6세기 백제의 동남아시아 및 인도 교역설
- V. 중국 경유의 백제·동남아시아·인도 교역
- VI. 일본 경유의 7세기 백제·곤륜 접촉
- VII. 7-8세기 한국 승려들의 동남아시아 및 인도 항해
- VIII. 맺는 말

I. 이끄는 말

한국과 동남아시아 및 인도 간 교류사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양 세계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아시아 세계에서 일어난 교류의 역사로, 그 교류는 “바다로부터 생각하고, ‘바다의 아시아’를 논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¹⁾ 한국과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역사적 교류는 육지 내지는 대륙 부분만을 중시하

*

**

- 1) 하마시타 타케시(2004), “바다에서 본 아시아 - 해국 중국의 등장과 새로운 주변 내셔널리즘”, 정문길·최원식·백영서·전형준 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92쪽.

는 아시아 시각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종래 한국에서의 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해는 아시아 대륙부 세계의 정치적 질서와 문화적 구조를 근거로 혹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²⁾

II. 선사 시대 한반도 · 동남아시아 · 인도 해양교류의 가능성

한국과 동남아시아 및 인도 간 교류는 주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이미 선사 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바다를 통한 교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항해로, 이것은 항해자가 선박을 적극적인 의지로 이동시킴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해상 활동이다. 다른 하나는 표류로, 이것은 선박이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다.³⁾ 항해를 통한 교류의 항로는 주로 연안 항로였다. 그러나 횡단 항로도 일찍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한반도 남부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석묘(支石墓)를 들 수 있다. 지석묘는 “동서양의 해안을 따라서 분포하는 대표적인 해양문화 교류의 증거”이다.⁴⁾ 해양교류의 또 다른 가능성은 표류이다. 예컨대 표류한 자가 계절풍과 해류(海流)를 따라 남중국해에서 한반도로 혹은 거꾸로 한반도에서 남중국해 연안 지역으로 오갈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필리핀 해역에서 발원하여 대만과 일본의 쓰시마(對馬) 섬을 거쳐 한반도의 북동 방향으로 흐르는 쿠로시오(黑潮) 난류를 이용하면

2) 이 논문의 주 내용은 조흥국(2009),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 (서울: 소나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3) 안경숙(2003), “바다를 통해 교류된 한국 고대 문물”, 김영원 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서울: 숲, 260쪽.

4) 김병근(2004), 『수중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88-90쪽.

동남아시아에서 한반도에 용이하게 도달할 수 있다.⁵⁾

Ⅲ. 기원 1세기 인도 공주 허황옥의 가락국 내도

고대 한국과 중국 간 교역은 육로 외에 해로(海路)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그 해로는 우회로(迂廻路)라고도 불리는 연안 항로 혹은 연해로(沿海路)와 직항로(直航路)라고도 불리는 횡단 항로 혹은 횡단로(橫斷路)의 두 가지가 있었다. 연해로는 한반도의 서해 연안에서 서북쪽으로 랴오둥(遼東)반도 그리고 산둥(山東)반도의 연안까지 이어지는 북방 연해로와 산둥반도 연안에서 남쪽으로 중국의 동남부 연안까지 연결되는 남방 연해로의 두 구간으로 구분된다. 횡단로는 한반도 서남 해안에서 황해를 횡단하여 중국의 동남부 해안 지방에 이르는 바닷길을 일컫는다. 중국 연안 지방과 한반도 사이의 교류는 대부분 연해로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횡단로도 중요한 루트로 작용했다. 그리하여 백제는 4세기 후반 중국 동진(東晉, 319-420)과 교류할 때 그리고 5세기 후반 중국 북조의 북위(北魏, 386-534)와 접촉할 때 횡단로에 의존했던 것으로 보인다.⁶⁾ 하지만 횡단로는 그 전부터 한반도와 중국 연안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양 지역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어, 이 해로를 통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남양 세계의 문물이 한반도로 유입되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1-2세기 유적인 전남 해남군의 군곡리 패총과 3세기 유적인 경남 창원시 삼동동의 웅관묘와 6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진 공주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유리구슬을 들 수 있다. 인도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 발견되어 “인도-패시픽 유리구슬(Indo-Pacific glass beads)”로 불

5) 위의 책, 89쪽, 100쪽.

6)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663-674쪽.

리는 이들은 주로 인도 동남부 해안에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생산되어 세계 도처로 교역되었다.⁷⁾

IV. 6세기 백제의 동남아시아 및 인도 교역설

「일본서기(日本書紀)」의 킨메이(欽明) 왕 4년 즉 543년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다.

가을 9월에 백제의 성명왕(聖明王)은 진부(前部) 내솔(奈率) 진모귀문(眞牟貴文)과 호덕(護德) 기주기루(己州己婁) 그리고 물부(物部) 시덕(施德) 마기모(麻奇牟) 등을 보내어 부남(扶南) 산 물품과 노예 두 명을 바쳤다.⁸⁾

백제와 부남 그리고 일본 간 접촉을 시사하는 「일본서기」의 상기 기록에 대해 최초로 주목한 자는 일본의 역사학자 미키 사카에(三木榮)인 것으로 보인다. 미키 사카에는 부남을 오늘날 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놓여 있던 나라로 간주한다.⁹⁾ 그러나 부남은 현 캄보디아 남부와 베트남 남부의 코친차이나(Cochinchina) 지역에 걸쳐 있었던 나라였다.

7) 이인숙(1999), “유리와 고대 한국”,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서울: 소나무, 227-228쪽.

8)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4년 秋9월.

9) 三木榮(1934), 『日暹交通史考』, 東京: 古今書院, 22-23쪽.

참고문헌

- 강성보(2004), “아유타국”, 『경향신문』, 08.19.
- 고병익(1985), 『혜초의 길을 따라』, 서울: 동아일보사.
- 고병익(1987), “혜초의 인도 왕로에 대한 고찰”, 『불교와 諸科學: 개교80주년기념논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병근(2004), 『수증고고학에 의한 동아시아 무역관계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 김병모(1995a), “한국 거석문화 원류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학회 편, 『문화론 하나』, 서울: 문덕사.
- 김병모(1995b), “한·일(韓·日) 쌍어문(雙魚紋) 비교연구”, 민족학 연구, 1, 91-111.
- 김병모(2006),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 2』, 서울: 고래실.
- 김부식, 『三國史記』.
- 김현구·박현숙·우재병·이재석(2003),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Ⅱ)』, 서울: 일지사.
- 박장식(1997), “동남아시아 언어세계의 다양성”, 박장식 외, 『동남아의 사회와 문화』, 서울: 오름.
- 안경숙(2003), “바다를 통해 교류된 한국 고대 문물 교류”, 김영원 외, 『항해와 표류의 역사』, 서울: 솔.
- 이도학(1991), “백제의 교역망과 그 체계의 변천”, 한국학보, 63, 67-105.
- 이도학(1996), 『백제장군 흑치상지 평전』, 서울: 주류성.
- 이도학(2003), 『살아 있는 백제사』, 서울: 휴머니스트.
- 이도학(2005), 『백제인물사』, 서울: 주류성.
- 이선복·한영희·노혁진·박선주(1996), 『한국 민족의 기원과 형성(상)』, 서울: 소화.
- 이용범(1980), “해제”, 義淨, 『大唐西域求法高僧傳』, 서울: 동국대학교부설역경원.

- 이인숙(1999), “유리와 고대 한국”, 『실크로드와 한국 문화』, 서울: 소나무.
- 이종호(2005), “한민족 · 한국인은 누구인가(2)”, 『국정브리핑』, 2005-02-19.
- 일연, 『三國遺事』.
- 임길채(2003), 『매몰된 백제 역사를 복원한다! - 해상무역국가로서의 백제의 모습(하)』, 서울: 범우사.
- 정수일(2001), 『고대문명교류사』, 서울: 사계절.
- 정수일(2004),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서울: 학고재.
- 정수일(2005), 『한국 속의 세계 (하) - 우리는 어떻게 세계와 소통해왔는가』, 서울: 창비.
- 조병철(2004), “허황후”, 『세계일보』, 08.18.
- 조흥국(2007), “동남아시아의 약동과 다양성을 얼버무리는 교과서”, 이옥순 외, 『오류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사 교과서 바로잡기』, 서울: 삼인.
- 하마시타 타케시(濱下武志)(2004), “바다에서 본 아시아 - 해국 중국의 등장과 새로운 주변 내셔널리즘”, 정문길 · 최원식 · 백영서 · 전형준 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 Amara Prasithrathsint(1993), “The Linguistic Mosaic”, In Grant Evans, ed., 『Asia’s Cultural Mosaic: An Anthropological Introduction』, Singapore: Prentice Hall, 1993.
- Cœdès, Georges(1964), 『Les États Hindouisés d’Indochine et d’Indonésie』, Paris: E. de Boccard.
- Groslier, Bernard Philippe(1980), 『Hinterindien: Kunst im Schmelztiegel der Rassen』, Aus dem Französischen übersetzt von Leopold Voelker, Dritte Auflage, Baden-Baden: Holle Verlag.
- Hall, Daniel George E.(1981), 『A History of South-east Asia』,

- Fourth Edition, London and Basingstoke.
- Huard, Pierre and Maurice Durand(1994), 『Vietnam: Civilization and Culture』, Translated by Vu Thien Kim, Hanoi: E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 Nguyen The Anh(1996), “Indochina and the Malay World”, 『Asia Journal』, 3(1), 105-131.
- The HUGO Pan-Asian SNP Consortium(2009), “Mapping Human Genetic Diversity in Asia”, 『Science』, 326, 11 December, 1541-1545.
- Wang Gungwu(1958), “The Nanhai Trade”,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31(2), 1-135.
- Wheatley, Paul(1961), 『The Golden Khersonese: Studies in the Historical Geography of the Malay Peninsula before A.D. 1500』, Kuala Lumpur: University of Malaya Press.
- Wolters, Oliver William(1967), 『Early Indonesian Commerce: A Study of the Origins of Śrīvijay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舊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7.
- 『南史』, 北京: 中華書局, 1977.
- 『南齊書』, 北京: 中華書局, 1977.
- 『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7.
- 『辭海 - 地理分冊・歷史地理』,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82.
- 『梁書』, 北京: 中華書局, 1977.
- 義淨(1980), 이용범 역, 『大唐西域求法高僧傳』,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역경원.
- 慧琳(2000), 김혜경 역, 『一切經音義 10』, 서울: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 三木榮(1934), 『日暹交通史考』, 東京: 古今書院.

『日本書紀』，坂本太郎，家永三郎，井上光貞，大野晋 校注，東京：
岩波書店，1965.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해양교류에 관한 고찰

저자이름

본 논문은 고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해양교류에 관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16·17세기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은은 약 7만 톤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중 약 2만 톤 정도가 유럽을 경유하여 다양한 해양 경로를 통해, 아니면 아메리카에서 마닐라를 경유하는 캘리언 선 무역을 통해, 또 일본에서 역시 조선이나 여타 다른 해양 경로들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리카산 은의 동쪽으로의 이동과 중국으로의 유입에 대해서는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결제수단으로 은을 이해하기보다는 은을 비롯한 귀금속을 별개의 상품으로서 자체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고, 무엇보다 중국의 국내 사정에 따른 폭발적인 은 수요가 지역간 금과 은 교환 비율상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은 흐름을 발생시켰음을 파악하였다.

이런 은의 흐름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물론 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가진 자체의 내적 발전과정과 별개로 또는 그것을 초월하면서 영향을 발휘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은 흐름의 부침만으로 명의 멸망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격변까지도 일원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파악하였다.

주제어 : 한반도, 동남아시아, 인도, 허황옥, 항해, 교역

Abstract

A Study of Korea's Ancient Maritime Intercourse with Southeast Asia and India

영문이름****

The history of contacts and intercourse between Korea, Southeast Asia and India is to be understood as having been unfolded in the Asian world which encompasses not only North- and Southeast Asia, but the region of the Indian Ocean, too. The understanding of Asian history and culture in Korea has been conventionally focused on the political order and cultural structure of the Mainland Asia. The study of political, economical and cultural relations in Asia, based on such a point of view, has been thus generally limited to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and Japan, or Korea and Japan, rarely expanded to include Southeast Asia and India.

The whole Asia encompassing view point of the history of intercourse in Asia seems to be especially important for the understanding Southeast Asia. Southeast Asia, lying geographically between Northeast Asia and South- and Southwest Asia, acted as stepping stones for the East-West trade and exchanges. Peoples not only from Northeast Asian countries, but also Indians, Persians, Arabs and Europeans, came to Southeast Asia or passed by for, above all, commercial or religious purposes, thereby also contributing to the cultural diversity of the region.

This paper which examines the maritime intercourse between Korea, Southeast Asia and India until the 8th century deals with the following subjects: the possibility of maritime intercourse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Southeast Asia and India in the prehistorical times; the possibility of intercourse between Korea and India in the first century A.D., based on the story of the Indian princess Heo Hwang-ok who came to the Korean kingdom of Garak; the question around the possibility of contacts between Southeast Asia and an ancient Korean kingdom Baekje in the 6th and 7th centuries; the pilgrimage of Korean Buddhist monks to India via Southeast Asia in the 7th and 8th centuries.

Key words : Heo Hwang-ok(허황옥), India(인도), Baekje(백제), Silla(신라), Funan(부남), Kunlun(곤륜), Southeast Asia(동남아시아)

예제 2

해항도시와 국가의 길항관계 및 협력의 논거 : 정부간 관계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1)

- I. 머리말 : 문제의 제기
- II. 도시와 국가의 상호관계와 그 이론적 메커니즘
 - 1. 수직적 통제관계 모형
 - 2. 수평적 경쟁관계 모형
 - 3. 상호의존적 협력모형
- III. 도시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해석과 평가
 - 1. Wright 이론의 해석과 평가
 - 2. Rhodes 이론의 해석과 평가
 - 3. 村松岐夫 이론의 해석과 평가
- IV. 맺음말: 과제와 전망

I. 머리말 : 문제의 제기

현대국가에서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도시는 국가의 일부분으로만 취급되는 객체(the objects)가 더 이상 아닌 것 같다. 각 도시는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자체역량을 제고(capacity building)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른 도시와의 교류와 소통(international interaction)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사회과학에서 ‘국제도시(international city)’, ‘세계도시(global city)’의 개념이 등장한 지는

*

**

오래이며, 이들간 도시네트워크(inter-city network) 및 지역수준과 세계수준의 네트워크(regional network and global network)는 학술적으로도 새로운 화두를 던져 주고 있다.²⁾

II. 도시와 국가의 상호관계와 그 이론적 메커니즘

지금까지 다루어진 도시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측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도시와 국가 양자의 본질 및 역할에 대한 측면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와 국가의 관계유형에 대한 측면이다. 전자는 국가가 법률적으로 도시의 존재를 규정하면서,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상의 존재로 도시를 인식하는 경우이다.

이는 도시와 국가의 관계를 단순히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가 대리인(agent)이나, 아니면 동반자(partnership)이냐를 국가가 어떠한 법적 의미로 정함에 따라 처음부터 결정되어버린다는 논리이다. 즉 오늘날 현대국가가 계층적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자본축적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한, 도시도 전체 국가구조 내에서 행하는 기능적 존재로만 설명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논리는 도시의 지위와 역할을 소위 '제도결정론(institutional determinism)적 관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초기의 전통적 학설로 치부되고 있다.

반면 후자인 도시와 국가의 관계유형에 대한 측면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논쟁과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회과학에서 이른바 '정부간 관계'에 관한 외국의 기존 논의는 크게 보면, 수직적 통제관계와 수평적 경쟁관계, 그리고 근래에 들어 새롭게

2) Sassen, S.(2002), 『Global Networks: Linked Cities』, New York: Routledge, pp. 1-87.

조명되고 있는 상호의존적 관계로 구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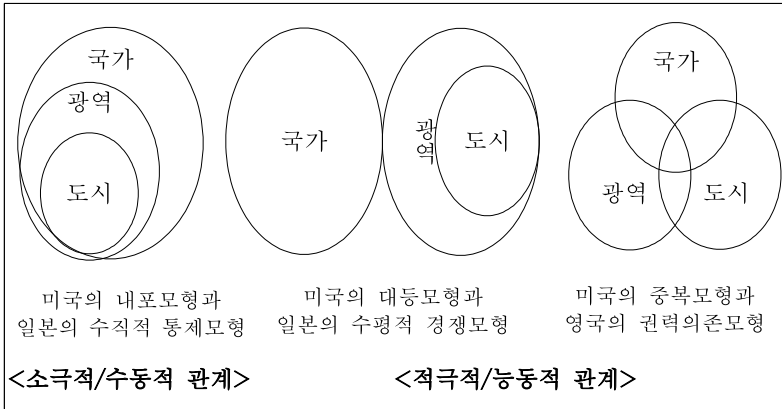
1. 수직적 통제관계 모형(vertical relation model)

수직적 관계는 도시와 국가의 ‘수직적 통치구조론(government structure)’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모형에서 주장되는 정부간 관계는 도시와 국가, 상위정부와 하위정부간의 ‘지배’와 ‘피정착된 분권적 국가’는 도시와 협상과 협력을 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논리를 편다.³⁾

이는 일본에서 나타난 天川晃(아마카와 아키라, 1983)의 도시와 국가의 관계논의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정치행정학자인 天川晃(아마카와 아키라, 1983)나 秋月謙吾(아키즈키 겐고, 2006) 등에 따르면, 수직적-수평적 모형을 제시한 무라마츠(1981)는 아쉽게도 상호의존적 관계 유형에 대한 논의는 깊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단지 무라마츠(1981)는 중앙-지방관계에 대한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상호의존모형을 도출하였지만, 전자를 후자의 단순한 하위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노력한 天川晃(1983)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와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분면(2×2)에 ‘집권-분권’과 ‘분리-융합’이 있을 것이다. 정부간 관계의 소극적 개념은 처음 논의되었던 도시와 국가의 1)수직적 통제관계를 말한다.

3) Bachrach & Baratz(1970)는 기존의 다원주의적 방법론이 권력의 다른 면, 즉 무의사 결정권력(Non-decision Making Power)을 설명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의사 결정권력은 실제로 추상적이고 복잡하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권력엘리트는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서 그 정책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힘(force), 영향력(influence), 권위(authority)에 의지해서 대안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이 후자의 권력을 무의사 결정권력 이라고 부른다(Bachrach, P. and Baratz, M. S.(1970), 『Power and Poverty: Theory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39-40).

<그림 1> 도시와 국가의 이론적 상호관계



결국 우리에게 남겨지는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이 연구를 초석으로 동양과 서양, 내륙도시와 해항도시 등 서로 다른 도시유형별로 국가와의 관계모형을 정립해 나가는 문제일 것이다. 동양과 서양, 단일제와 연방제 국가에서 도시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보다 특성화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 도시와 국가, 양자에 관한 연구에서 이론의 변화와 발전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이러한 과정 자체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정문수(2008), “해항도시의 문화교섭학”, 『한국해양대학교 2008년
도 인문한국지원사업 인문분야 신청서』.

정문수·정진성(2008), “해항도시 네트워크가 구성하는 발트해 지
역”, 『독일언어문학』, 42, 233-251쪽.

정문수(2005), “서양에서의 중앙과 지방: 이탈리아 역사에서의 중
앙과 지방의 관계”, 『서양사론』, 86, 95-120쪽.

하혜수(2004),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역할분담실태에 관한 연구:
OECD 국가와의 비교”. 『한국행정논집』, 16(1), 107-130
쪽.

村松岐夫(1981), 『戦後日本の官僚制』, 최외출·이성환 옮김.

村松岐夫(1988), 『중앙과 지방정부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村松崎夫(1988), 『地方自治』,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鳴海正泰(1996), 『現代日本の地方自治と地方財政』, 東京: 公人社.

天川晃(1983), 廣域行政と地方分權. ジュリスト増刊総合特輯, No.
29. 「行政の轉換期」, 東京: 有斐閣.

秋月謙吾(2006), 『民主主義体制における財政調整制度と政府間關
係. 持田信樹 [編]. 地方分權と財政調整制度』, 東京: 東京大
學出版會.

Butler, Kim D. "Defining Diaspora, Refining a Discourse."
Diaspora 10.2 (2001): 189-2319.

Carroll, Hamilton. "Traumatic Patriarchy: Reading Gendered
Nationalism in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Modern
Fiction Studies*. 51.3(2005): 592-616.

Chang, Joan Chiung Huei. "*A Gesture Life*: Reviewing the Model
Minority Complex in a Global Context." *Journal of
American Studies* 37.1(2005): 131-52.

Cohen, Rubin.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London: UCL
Press, 1997.

- Jerng, Mark C. "Recognizing the Transracial Adoptee: Adoption Life Stories and Chang-rae Lee's *A Gesture Life*." *MELUS* 31.2(2006): 41-67.
- Lee, Chang-rae. *A Gesture Life*. New York: Riverhead Books, 1999.
- _____. *Native Speaker*. New York: Riverhead Books, 1995.
- Lee, Young-Oak. "Gender, Race, and the Nation in *A Gesture Life*." *Critique* 46.2 (2005): 146-59.
- Lowe, Lisa. "Heterogeneity, Hybridity, Multiplicity: Marking Asian-American Differences." *Theorizing Diaspora*. ed by Jana Braziel and Anita Mannur. Malden: Blackwell Publishing, 2003. 132-155.

해항도시와 국가의 길항관계 및 협력의 논거 : 정부간 관계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저자이름

본 논문은 해항도시와 국가의 길항관계 및 협력의 논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16·17세기에 전 세계에서 생산된 은은 약 7만 톤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중 약 2만 톤 정도가 유럽을 경유하여 다양한 해양 경로를 통해, 아니면 아메리카에서 마닐라를 경유하는 갤리언 선 무역을 통해, 또 일본에서 역시 조선이나 여타 다른 해양 경로들을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리카산 은의 동쪽으로의 이동과 중국으로의 유입에 대해서는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적자의 균형을 잡기 위한 결제수단으로 은을 이해하기보다는 은을 비롯한 귀금속을 별개의 상품으로서 자체의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고, 무엇보다 중국의 국내 사정에 따른 폭발적인 은 수요가 지역간 금과 은 교환 비율상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은 흐름을 발생시켰음을 파악하였다.

이런 은의 흐름이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물론 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가진 자체의 내적 발전과정과 별개로 또는 그것을 초월하면서 영향을 발휘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은 흐름의 부침만으로 명의 멸망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격변까지도 일원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파악하였다.

주제어 : 해항도시, 국가, 길항관계, 협력, 도시

Abstract

Some Thoughts on Concepts and Arguments of Antagonistic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 Focusing on Review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영문이름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t out a future research agenda on central-local relations which recognizes how the spread of new arrangements has changed those relations and how insights from the literature can shed light on those relations. In order to attain this goal, This study discuss three type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issues that impact this working relationship. Defin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ts refer to federalism into actions which mean that them political, social, administration and programatic relation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other kinds of government like the urban and local government. So,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is formulated from intergovernmental relation theory in the United States, England and Japa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is still important, however, there needs a cooperation among interest group of stakeholders includ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lso, this study stresses the need to understand central-local relations within the context of a wide range of

factors, and how those relations have changed as intergovernmental arrangements have grown in significance. Finally, there is no doubt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play a stronger role in our society in the years ahead. In order to establish the decentralized cooperative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the one way control system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nd the interdependent horizontal relationship is needed.

Key Words : Intergovernmental Relation(정부간 관계), Conflict (갈항), Cooperation(협력), Central(중앙), Local(지방).